

COUNSELOR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Isaiah 9:6)

After a baby is born, many people send out birth announcements letting everyone know the details of their precious newborn. Isaiah sent out the Messiah's birth announcement centuries before His actual birth, as did Moses, Daniel, Joel, David, Hosea, and Micah. All these people prophesied His coming before He was born. Whereas birth announcement include the baby's one proper name, the Messiah's birth announcement included many proper names to help describe His personality. One such name was Counselor.

As Counselor, Jesus Christ became available to everyone. The name "Counselor" refers to His perfect wisdom. Of course, His wisdom is worthless to those who do not apply it to their lives, and to those to whom it is unavailable. Prior to Jesus' birth, the Holy Spirit dwelt upon a few to help counsel the many, but at His first coming, He brought words of eternal life, so that upon His death the Holy Spirit could indwell all who believe in Him.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but "He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Phil. 2:6-7). In becoming God-man, He became the perfect Counselor for the lowly shepherds, Gentile wise men, little children, sick people, rich people, and all other sinners. Everyone was welcome to worship Him, and seek His counsel.

As Counselor, Jesus Christ came into our world with the answer. When the renowned Bible teacher, Nicodemus, came in the night to talk with Jesus about real life issues,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Jn. 3:3). When th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wanted to know where she could get living water, Jesus answered her, "but whoever drinks of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shall never thirst; but the water that I will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well of water springing up to eternal life" (Jn. 4:14). He even told her that He was the Promised Messiah (see Jn. 4:25-26). Jesus had, and will always have, all the answers.

He even knows the answer to the future,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n. 14:1-2). When Thomas wanted to know the way,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Did He have the real answer or not? When He was talking with His disciples about wealth and Hell, He gave them all the answers (see Lk. 16:23-24). He is a true Counselor that not only makes you feel good, but also gives you the whole truth, both bad and good.

As Counselor, He came with assurance for hopeless sinners. He brought with Him the message of love. He loved the crook, Zaccheus, and went to house to bring him salvation (see Lk. 19:1-10). He loved the dying thief on the cross who asked Him to remember him when He came into His kingdom. Jesus answered hi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see Lk. 23:39-43). Indeed, Jesus came to bring hope to those who had no hope, like the paralyzed man whose four friends lowered him through the roof to be near Jesus. He reaches out to everyone in need. He offers us, right now, hope,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He is the only Counselor who offers such blessed assurance to those who come to Him.

During this Christmas time, we celebrate more than Jesus' miracle birth. This virgin born Savior is the answer needed today. His answers are relevant to every need of every age, regardless! Please soften your hearts to hear His words, and bring your burdens and problems, all of them, to Him. His wonderful, wise counsel will guide you through them all. Remember, His name is Counselor. Is He available to you, or have you closed your mind? It is up to you to take His wisdom or not. Sincerely, I hope that this Christmas season you have the Wonderful Counselor in your life, for you will surely have eternal hope and eternal life. 

다들 주일 설교

모사(謀士)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김성관 목사

아기가 태어나면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의 출생 소식을 알립니다. 자기들의 귀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메시아가 실제로 태어나시기 수 백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렸던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모세, 다니엘, 요엘, 다윗,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기의 출생 소식을 알릴 때 아기의 진짜 이름은 하나뿐이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릴 때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해 주는 진짜 이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모사’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모사’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지혜가 쓸모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몇몇 사람들 가운데 임해서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나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가져오셨고,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빌 2:6-7)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인(神人)이 되시면서 완전한 모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픈 사람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다른 모든 죄인들에게도 완전한 모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답을 주시는 분

모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 니코데모가 참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밤중에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들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기 원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심지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4:25-26 참조).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

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터 없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1-2).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자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정말 예수님은 참된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와 자옥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눅 16:23-24 참조).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나쁜 모든 진리를 가감없이 알려주시는 참된 모사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

모사로서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확신을 가져오셨습니다. 사랑의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눅 19:1-10). 예수님은 바로 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강도도 사랑하셨습니다(눅 23:39-43 참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하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린 후 풀어진 지붕 아래로 내려져 예수님 앞에 온 중풍병자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바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복된 확신을 줄 수 있는 참된 모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모든 시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모두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놀랄고도 지혜로운 지도를 받으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에 이 놀라운 ‘모사’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들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된
여자의 후손

(창 3:15)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제1인 먼저 약속해 주시고 둘러주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 약속은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계시되었으며 마침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야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나실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다. 그래서 마태는 창세기와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마태복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

마태복을 1장에 기록된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별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다말, 룻, 밧세바, 마리아)을 살펴보면, 모두를 버리고도 천한 여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을 1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사람의 역사이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갑자기 혹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결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니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시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후손, 곧 인간의 정상적인 생식방법을 통해서 나지 않고 오직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이시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은 세상의 구주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요 선지자들과 기록한 천사들도 예언했던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자신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눅 1:34,35).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도 은 세상의 구주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실 것을 믿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마 1:24,25). 후일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내가 차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갈 4:4).

신자는 그리스도의 동성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나리라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 물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눅 1:34b).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였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눅 1:37). 천사의 짧은 대답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 1:38).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란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하시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수없이 확실히 보여주셨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크리스마스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자.

동성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지혜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전 2:14). 세상의 축복에 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6).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데리고 약속되어 있으니 이런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 성령님 앞에 마음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도록 은혜를 구하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자의 후손'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행 16:31).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 뜻대로 쓰옵소서서계실
(권사, 1사회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해 겨울밤이었습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참으로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지요. 우리는 종소리는 먼 거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듯 온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그만 잠이 깰 것일까요? 다시 잠을 청해보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막연하게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어렴풋이 빨간색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보니 교회 앞이었습니다. 불이 켜진 교회당 문들을 열어 내어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첫 걸음이었습니 다. 그 때 그렇게 주님은 저를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먼저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6).

이후 주님은 처음 시작보다 더 좋은 은혜를 저의 삶 가운데 계속 베풀어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주님이 만들어주셨던 포도주가 더 맛있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의 신앙생활도 처음보다 이후가 점점 더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으며, 그 은혜를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저 같은 죄인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 또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고 영적 능를 뜨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짓으로도 말로도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랑부에 들어가 사랑부 가족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아,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구나'라고 생각하며 학생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뻔 은혜롭니까? 그들과 사랑을 나누수록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의 기쁨과 보람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많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재주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이전에 권사와 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던 저를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제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들을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중한 일을 맡겨 주셨으니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신 사랑 잘 감당하겠습니다. "두리더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율법이라 너를 너를 온전하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후회, 회개 그리고 감사

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겠지

지금 가장 먼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의 찬양곡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이러한 뜻에 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다닌 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선교를 가겠느냐는 대학부 팀장의 권유에 당연하다는 듯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크리스천인데 단기간 고한 번 정도는 다녀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선교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에 대한 소망도 기도도 별로 없었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설마 정말 저런 일들을 모두 겪었던 말인가?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어떻게 느낀다는 것인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선교를 떠나는 당일까지도 그 나라 영혼을 구하러 간다는 다짐보다는 막연히 '아! 나도 가는구나.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상 경유지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괜히 무를 떨림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와 그 그때까지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욱더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어쩔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무시한 건 아닌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건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속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며, 내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후회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준비한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많이 캄캄하고 무서웠습니다. 선교를 여행 정도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고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야 저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

울고 또 울어야했다

처음 사역을 나가서 여러 영혼들을 만나고 가슴 속으로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왜 믿지 않는 나라, 아니 믿지 못하는 나라에 태어났을까? 어째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의 가족을 택하시고 사명해주신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어찌 됐을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했고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얘기를 받아들일 때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께서 지나가다 고 비켜주시며 웃어주실 때 저와 동료들은 그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전도지를 드리며 짧은 언어로 전도를 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만 가려고 마음먹고 그냥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며 그 때서야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고맙다고 말씀하고 전도지를 가슴에 품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가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고, 그 할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와 감사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선교 가기 전 나의 행실이 안타깝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하는 동안 힘들어서 하기 싫기도 했었고, 대충하다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러한 생각 중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교를 허락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어 그 나라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혜경(대학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2월 6일(월)~12월 14일(화)	17교구 2구역	윤민	12월 6일(월)~12월 14일(화)	17교구 추가	유재훈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11월 25일(목)~12월 2일(목)	영이부	김성호

"도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러"
 (골 4:3a)

얼마나 기쁜일인지

먼저 고등부의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이 값싼 선교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막막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장, 언어문제, 팀원들의 화합 등등. 전 솔직히 말해서 고등부에서 노방전도를 나갈 때에도 자신감 없이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걱정만 되었습니다. 전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때야 아니면 언제 외국에 나가보겠어. 외국에 다니려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를 위안하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의 진정한 목적을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거지요.

전 거의 선교가 직전까지 가서 선교를 왜 가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닌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자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주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팀의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별기'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던 별기 아니냐'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하게 있기로 했습니다. 속소, 언어, 건강 등 제가 걱정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는 무리에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하는 즐거움이 생겼고, 더욱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비록 기온차이 때문에 감기는 걸렸지만, 그것마저도 그냥 넘겼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넓은 세계 중 타국에 다녀와서 그곳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어떤지 등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전 이번 사역에서 받은 은혜를 오래도록 아니 평생도록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감사해야겠지요. 전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성공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걱정만 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중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에 임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선교가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전환점이 자신만 믿었던 이리과는 저에게 교훈을 주었고 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연 (고등부)

두근두근 선교일기 ①

필수적인 사명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파일을 사라 갔는데 어떤 현지인이 접근을 했다. 짐사님께서 그분께 전도지를 한 장 주었다. 그 때 나는 "저분을 위해 기도해주세요"라고 팀원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다보니 서로 친구가 되었다. 착한 분이었고. 그분은 내일이 'Friendship Day'라고 내게 편지를 주었다. 나는 선교를 와서 이런 것을 받아도 되냐고 고민했는데 주위에서 그냥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편지 기분이 개뿔적했다.

정말이지 선교를 하려면 영어가 필수적이다. 이번 해에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교 기간은 8박 9일이었는데 너무 짧은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금방 가서 아쉬웠다. 대략 4일 정도는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5일 동안 선교를 했다. 정말 며칠이 더 더 남아 선교를 하고 싶었다. 내년에 기회가 온다면 11박 12일은 갔으면 좋겠다. 많은 비행기 값을 내면서 8박 9일은 너무 아쉬웠다.

내 간 선교지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많은데 그런 나라에 다녀나갈 때 예수님은 나라의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사명을 받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많은 현지인들이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아버지라 부르짖을 뿐 믿는 아버지가 정말 안타깝다. 빨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나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해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도해야겠다. 또 먼저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 나라로 나가 직접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한 내년에 선교 나가서 이번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외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은 물론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해야 하는 것 같다.

이진형 (중등부)

새가족의 노래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사업자 술, 담배를 권하는 것을 매번 뿌리치는 게 괴롭고 지겨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경말씀을 들으면 기쁘게 뿌리칠 수 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4년 이상 나를 전도하러는 아내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가족예배, 대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 맘이 편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필치 모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교회에 나온 지금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작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삶이 후회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해야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기쁩니다.

교회에 나와 변화된 삶이 있다면, 새배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말씀이 어려워 모르는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가족도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나만 받지 않고, 내 주위사람에게 돌려주며 살고 싶습니다.



박유영(새가족부, 13교구)

천양예배 설교를 듣고

벨사살 왕의 잔치에 참여한 자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유해한다고 합니다. 기질이 강했던 저로서는 비록 젊은 나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장차 걸여가고자 하는 길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편만해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주의와 반기독교적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는 데입니다. 이런 시대에 고결하기만한 신앙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천양예배를 통해서 목석화 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통해 내가 '벨사살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악했습니다. 저는 두려워 그 왕처럼 심히 뿔 수밖에 없었습니다(단 5:6).

주님의 것을 분변치 못하여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병으로 즐거워하고(단 5:2), 세상을 두려워하고 추종하며(5:4), 정자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혼계로서 주시는 환난과 목시조차 깨닫지 못하고(5:5) 심지어 그 혼계를 받을 때마저도 세상의 방법과 실력을 의지하고 있는(5:7), 벨사살 왕과 귀인들의 동배함과 교만한 모습을 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라이라해서 위대한 자라는 메시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자원의 신앙적 경지였습니다.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베드로를 책망하였으나, 오히려 그 순간 차라리 그러한 열기에 찬 고백이라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조차 될 수 없었음을 부끄러워했어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서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단히 나를 휘감고 주장해온, 풀릴 수 없는 죄악과 교만의 매듭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저의 항방은, 뜻을 정함(단 1:8)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미명 하에 '내'가 인정되는 것이었고, 관용이라는 허울 속에 정확하고 투박한 해석과 향연(5:23)을 애써 회피해 온 신앙의 가면을 쓴 '위선'이었습니다.

주일 밤은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두 회를 운 수답이 이제 곧 한 번 더 소리칠 것 같아 그 일을 참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의 신앙으로 건너가지 못한 것은 '세상의 욕심과 자기를 부인함(단 5:17)을 통한 두려움 없는 경건함'이 없었기 때문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팔에서 해매다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케 하시는지(단 14:34) 깨달았을 때에는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통회의 아픔이 있었지만 회개할 용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어린 십자가 그늘 밑이었습니다(단 4:17장). 그곳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고, 늘 고민하였던 세상의 변역과 악인의 행태의 결국(시 73:17)을 진정으로 유한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다(찬 204장)." 아멘.



윤대형(천년1부)

엄마와 아들의 이중주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니까요.



송희림 (유치부)

믿음의 부요한 자 되기를

세월이 살갗이 빠른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까? 여전히 이러한 숭한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하말이가 벌써 7살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우리아가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고, 원하는 학교도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저 나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나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성공대로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 항복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부추한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빚으시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말씀은 언제부터인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꿈이란, 비전이란, 우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시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 서는 이 땅에 사셨을 때에 모든 것을 가진 분이셨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셔서 인자는 머리 돌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에,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삶을 부인하지 아니하곤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일에 꿈꾸는 자로서 내 아이가, 복음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길 소망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치부 송희림 엄마

교회탐방 44 헌금부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다 못 하여 지친 굳어 보이까지 하는 헌금 봉사자들이 만 치의 착오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예배를 수 중든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토록 질서 있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일까? 여태 들어 보지 못 했던 헌금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헌금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헌금부는 예배위원회의 소속입니다. 모두 365명의 헌금부 봉사자들이 1부에서 5부예배를 기본으로 특별절기와 월 1회의 수요 2부 헌신예배 때 헌금을 수거함으로써 예배를 수중들고 있습니다." (황희만 장로)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중에 법사에 감사하며 구별한 헌금을 준비된 자세로 드리는 것이지요." (김영순 권도사)

헌금을 수거하는 과정을 알려주십시오.

"예배 시작 30분 전에 1,2층 봉사실에서 인원을 점검합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한 후에 각자 신축하게 자기 자리에 가서 착석합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봉사자들끼리 2인 1조가 되어 호흡을 맞추어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수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질서 있게 퇴장합니다. 5부 예배 후 헌금을 집계하여 은행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즉시 그리고 안전하게 입금 처리 합니다. 헌금은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단 하루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금수거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보관 합니다." (황희만 장로)

헌금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전체 헌금위원들께 경건한 조화와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두나 스킷 등 복장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지요." (박인자 권사)
"양쪽에서 헌금을 수거할 때도 두 사람간의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헌금주머니를 주시하는 자세도 중요합니까." (김연순 권사)

헌금 위원들의 마음자세는?

"헌신된 마음과 준비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도들께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으로 소신자들에게 신앙적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자 권사)



어떤 사람이 헌금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정신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실 집사님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에 훈련된 분이든 누구나 헌금부의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김영순 권도사)

헌금위원을 하면서 얻는 영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를 사용하신 주께 감사하며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드리는 하루 예배가 특히 은혜스런 겁니다." (황희만 권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수중 들 때 구별된 마음이 듭니다." (백애순 집사)

"순종하는 기쁨과 쓰임 받는 기쁨이 각별합니다." (김동화 집사)

"봉사자로 택임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께 저를 주시하셨다는 고감이 느껴집니다." (곽계자 집사)

성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금 봉헌 시간에 지갑을 열고 헌금을 꺼내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연순 권사)

"주보 안에 미리 배포하는 특별헌금은 그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으로 부랴부랴 헌금 준비를 아느라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인자 권사)

"모든 것이 주께로만 왔으니 주의 것을 주께 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으면 합니다." (임자옥 권사)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백애순 집사)

"주머니가 앞에 와서 헌금을 찾는 모습이 없었으면 합니다." (김동화 집사)

"늦게 오셔서 못 드리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헌금봉헌에 참여하십시오." (김영순 권도사)

헌금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소개해 주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새 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모습이지요." (김연순 권사)

"호합을 깨트리느라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임자옥 권사)

"봉헌하는 경건한 마음이 느껴질 때입니다." (박인자 권사)

"어느 날 몸이 불편하고 공집에 보이는 성도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몽글하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곽계자 집사)

성도들이 정성 어린 헌금을 수거하여 주께 드리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씀은 두렵고 떨림다는 말이다. 이는 예배를 수중드리는 감동으로 매 시간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두루려 걸로 경건해지며 택임 받은 감격으로 겸손해지는 사람들의 경건한 고백들이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굴"

이 찬송의 작자자 필립스 부르크 박사는 시인은 아니었으나 성직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몇 편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썼다. 이 크리스마스 찬송이 그 중의 하나다.

그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하면서 영감을 얻어 이 찬송을 쓰기 시작하였다. 부르크 박사는 옛날 목자들이 별을 발견하고 기뻐하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에 담으려 한 것이다.

1절은 베들레헴이 고요한 아담 속에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바로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비춤을 노래한다. 2절은 "하나님 세상을 이치럼 사랑하시라 동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하며, 3절은 밤을 감싸는 고요한 저녁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소리 없이 오심의 상징이요 주를 바라는 모든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4절은 베들레헴에 나신 거룩한 아기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탄생 하셔서 동거하시기를 빈다는 것으로 또다시 임마누엘 되시는 주께 간구하고 있다.

이제 성탄을 맞을 우리는 첫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헌원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76	유용훈	12	장년1부	윤인숙(3)	2886	권기하	19	청년1부	이계하(12)
2877	조경원	19	중등3부	이성진(1)	2887	김영아	3	청년2부	김남욱(1)
2878	이용자	8	장년3부	이정현(11)	2888	김혜란	19	청년1부	이용수(10)
2879	조상훈	19	청년1부	정종철(10)	2889	한신미	5	청년1부	이명훈(19)
2880	이형학	16	장년2부		2890	손훈	9	청년2부	이강근(15)
2881	박병성	15	장년1부	한복순(15)	2891	정현국	19	외선부	김현배(10)
2882	박병권	15	장년3부	한복순(15)	2892	사유순	19	외선부	김현배(10)
2883	노형준	19	청년2부		2893	임경보	1	장년3부	임현진(19)
2884	김복은	19	고등부	백인숙(1)	2894	진은미	19	청년1부	정청정(13)
2885	오현정	1	청년1부	윤연영(1)					

* 총총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협력선교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용하시며, 믿음을 증거하게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영원 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침이 예때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언이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 ③ 2005년도 단기선교와 CMTC훈련 및 언어훈련이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 ④ 충헌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⑤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충헌교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